

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
		배포일시	2019. 5. 30(목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광역시설 운영과	담당자	•과장 이우제, 사무관 김인규, 주무관 최규열 •☎ (044) 201-5102, 5101	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「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」 나온다

- 6월부터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본격 실시 -

-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: 최기주)는 남양주, 검단 등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한 권역별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이를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본부장(상임위원)을 팀장으로 하고, 국토부내 교통 및 주택 부서, 그리고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5월28일(화)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.
 - 1차 회의에서는 지자체 의견수렴 방식, 기본구상안 검토방향 및 TF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지자체 의견수렴은 지역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2개월 동안('19.6~7월) 총 8차례에* 걸쳐 권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
 - * (수도권) 동북권, 동남권, 서남권, 서북권
(비수도권) 부산·울산권, 대구권, 광주권, 대전권
 - 2기 및 3기 신도시가 위치한 수도권 지역은 기초 지자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도시 교통대책 보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.

- 특히,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은 출퇴근 시간 단축, 이용자 편의 및 안전 증진, 교통비 절감을 목표로 하여 2·3기 신도시까지 망라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기로 했다.
- 구체적인 교통대책에 대하여 지역 간 이견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정기능을 활용하여 적극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.
- 김희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은 “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본구상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 김인규 사무관(☎ 044-201-510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